■절기예배 설교■

부활주일

심 현 섭(농민 목사, 강원 화천)

본문 : 고전15:58
제목 : 부활신앙인의 삶

바울은 고전 15장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1절까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존재론적인 부활을 증거합니다. 흔히 역사적인 증명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12-34절은 신학적인 설명을 시도합니다. 35절부터 오늘 본문 58절에 걸쳐서는 부활체의 전격적인 변화 등 그 성격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 이 부활장의 특징 중의 하나는 각 부분의 결론이 모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실제에 닿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울이 쓴 서신서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론과 실제를 균형 있게 다루는 바울의 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게바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보이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였으며, 나중에는 자신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에 스스로 묘사한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시기적으로는 이미 죽은 예수님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약 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겪었던 경험을 두고 바울은 지금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부활

한 예수를 증거 하는 근거 제시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 흔히 쓰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간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신자는 모두 바울과 같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 된 신분으로 태어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모두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바울은 그 한번의 체험을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평생 헌신적으로 살아갔는데 반해, 우리의 대부분은 한번의 체험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희생과 봉사의 삶은 도외시한 채, 계속해서 체험만을 좇든지 여전히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산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느냐 하는 점은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는지 잘 압니다. 고전 4장에 사도들의 고난과 고후 11장에 묘사한 바울 자신의 고난에 대한 설명은 그 고통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니 그의 삶의 역경은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모든 위험에 노출되고, 굶고 춥고 헐벗는, 그 험난한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에게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왔다고 고백합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절절한지는 8절의 묘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도들에게 보인 것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희생적 삶의 지속성은 바로 이러한 겸허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극한 겸손과 지극한 은혜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주어도 인간이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를 모르게 되고, 결국은 값

싼 은혜, 자기만족과 안위를 채우는 은혜로 전락시킵니다. 바울은 평생동안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딤전1:15)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역동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겸손의 결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극한 은혜는 있는데, 그에 따른 겸허함이 부족할 때 감사의 마음이 엷어지며, 그런 마음에서 헌신의 삶은 나오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과 봉사보다는 자기 만족과 성취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헌신하는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지, 결코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순환론적인 논리로 반증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라는 식의 논리로 따지고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우리에게 힘있게 다가오는 것은 전반부에서 언급한 바울의 존재론적인 고백 때문입니다. "내겐 체험이 있고, 그 체험이 나를 이런 희생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내가 그를 봤다. 그런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말이냐,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나는(신자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논증입니까? 저는 이것보다 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논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삶이 담보된 증명이 참 증명이요, 영향력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논리적, 역사적 증거라는 세상의 논리로 부활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많이 봅니다. 이런 시도가 전혀 쓸모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철저히 자신의 삶의 변화, 즉 희생과 봉사의 삶을 근거로 설명해야만 하

는 신비하고 초월적인 영역의 사건입니다. 자신의 삶을 걸지 않고 부활을 설명하려 하니 자꾸만 세상의 논리가 필요하게 되고, 관념적 유희에 빠집니다. 적어도 바울은 그렇게 얄팍한 방법으로 부활을 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1-3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나 다시 살 것을 알기에 깨어 의(義)를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부활은 이렇듯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인간의 조야한 언어와 생각으로 이론적으로만 머리를 끄덕일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이해를 구해야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35-49절에서는 부활할 때 전혀 새로운 형태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여 재생하는 게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주된 의도는 새롭게 변화한다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너희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42-44절에 나오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등은 바울의 이생관을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있어 현실세계는 우리가 다시 살아야 할 하늘나라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헛된 곳입니다. 이런 세계관은 전도서를 비롯한 구약의 세계관과 일치합니다. 이원론적이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부정적인 이원론과는 다릅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생은 분명히 퇴폐적이고 허무한 곳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동떨어진 삶을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힘입어 고치고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목입니다. 10절에 언급한 바울의 수고도 그러한 일면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세상은 다시 사는 것을 믿지 못하기에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에 얽매여 삽니다(56절).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하며 선한 행실을 더럽히며 살기도 합니다(32,

33절).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믿고 내일 다시 부활 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34절).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울의 각 결론은 이렇듯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제시하며 맺습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 부활 신앙은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제공하는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따라서 부활장의 최종적인 결론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바울과 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본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죄의 댓가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몇 가지 권면의 말을 합니다.

첫째,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을 보면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이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짓과 술수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영화를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권세를 획득하여 호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듯이 보입니다.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른 일을 하려는 의로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 의로운 사람들은 내가 뭐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나도 다른 사람처럼 적당히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니냐,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만일

텐데 뭐,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이 여기에서 마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으니(롬 8:18)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되 항상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체험을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 분명하지만, 그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현장에 있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사도행전을 유심히 읽어보면, 특히 행간(行間)의 의미를 살피면, 바울은 고통의 현장에서 더욱 신이 난 사람이란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의 사역을 멈추게 할 수 없었으며, 그럴 때 바울은 오히려 세상 어느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이 편한 것을 좇고 안주하며 만족하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당장 몸은 편할 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불행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되 '더욱', '항상' 해야 합니다. 이쯤이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은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순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늘 주의 일을 하는 현장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주의 일의 현장에서 멀어져 있으면서 "옛날에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하는 과거 회귀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특히 부활의 믿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쯤이면 됐지" 하는 유혹을 이기고 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부활의 믿음을 간직할 수 있으며 더욱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보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 8). 주의 일에 지치고 힘들 때 하늘에서 내릴 상을 소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 비교가 되고 주눅이 들 때 우리는 더욱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우리의 바랄 것은 세상의 재물, 명예,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늘의 면류관이라고 믿으면서 주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런 의식은 기독교적 세계관, 즉 죽음이후 부활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근거한 세계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주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삶 전체에 대한 분명한 조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살만한 실제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가끔 도시에 나가 수많은 십자가를 볼 때나,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교회 건물을 보면 더럭 겁이 납니다. 시골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도시의 크고 화려함을 좇는 사고구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신앙인을 대하면 과연 우리가 이생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다시 살 것을 믿는 사람들인가 하고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잠깐 스쳐갈 이생에다 저리도 많은, 적절치 못한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이토록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할까 하는 생각에, 화려한 성전을 보고(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주눅이 들고 입을 벌리고 있었을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중얼거리셨던 예수님의 고뇌에 찬 말씀이 떠오릅니다. 부활을 믿는 신자로서 이생은 당연히 나그네와 같이 스쳐 가는 삶의 일부에 불과한데, 우리의 씀씀이와 생각은 마치 여기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는 곳인 양, 살아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투자하며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겠습니다. 사람마다 그 결론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고후 4:18절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좇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함은 눈에 보이는 황금과 권력, 명예 등에 반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실천, 크고 화려한 것을 버리고 선택하는 가난한 삶, 인류와 민족을 향한 박애주의의 실천 등이 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 즉 세상의 모든 모순(빈부의 격차,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 생명의 한계인 죽음 등)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기심과 사행심, 경쟁을 통한 부의 축적 등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인으로 부활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